

식량발전 중장기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군산시, RPC 운영 7개 농협과 실무 책임자 협의회 구성 논의

군산시는 식량산업분야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지원 투자를 통한 식량산업 발전을 위해 '군산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6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기존에 식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소요 검토가 미흡하고 가동률 저하 등 비효율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 미곡 생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식량작물 생산면적 1만6,060ha의 74.2%, 생산량은 10만2,596톤 84.2%로 미곡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



군산시는 식량산업 발전을 위해 군산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에 이와 관련 고품질 군산 쌀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유통 체계화 방안 및 잡곡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식량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과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량산업 중

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관내 RPC와 DSC를 운영하는 7개 농협과 관련 기관 등 실무 책임자 중심의 협의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각 주체별 현안과 역할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식량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거점 RPC 중심의 계열화 방안과 타 작물 전환, 잡곡산업 육성계획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문영업 농산물유통과장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승인되면 관련 국비사업 신청자격을 부여받고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군산시의 식량산업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경찰서가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학교 주변 치안보조 책임

군산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올해 지역 내 안전취약지역 및 학교 주변의 치안보조 역할을 책임질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위촉과 함께 아동안전지킴이 근무지침 및 아동범죄 등 상황별 대처요령과 함께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심폐소생술 등 직무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관내 7개 지파출소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놀이터, 공원 주변 등에 배치, 아동안전

확보와 범죄예방 순찰 등 치안보조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동안전을 위해 활동한다.

안상엽 서장은 "아동안전 수호를 위해 학교 주변 등 최일선에서 활동해주시길 아동안전지킴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에 선발된 모든 분들이 내 가족, 내 손자손녀를 지키는 마음가짐과 사명감으로 아동이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군산시가 26일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제272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군산시 안전보안관, 재난예방 민간에합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약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민에게 국가안전대진단 리플릿과 주택용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안전신문고 이용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시민 스스로 점검하고 위험요소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미래성장 강소연구 개발특구 본격 추진

군산시, 지정 실무협의회 개최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의 새로운 연구 개발특구 모델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시는 최근 기술핵심기관인 군산대학교와 관내 연구 및 지원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강소특구 지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강소특구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오는 4월 특구육성 종합계획, 시민 및 전문가 공청회 등 사전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군산시는 '새만금 Science Park' 조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특화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태양광중합평가센터, 해상풍력전문센터, 상용차 테크비즈프라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강소특구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의 모델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새만금 캠퍼스 인근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우수 과학기술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강소특구는 미래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많은 유망 기업의 투자 유치와 연구 성과

에 따른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세금 면제와 개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과 인력양성과 기술 개발 사업화의 정부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안전한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6일 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119수호천사 의용소방대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9수호천사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군산소방서에서 진행되는 심폐소생술 교육 8시간을 수료하고 실기평가에 통과해야 한다.

교육은 소방서에서 소속된 전문강사(BLS instructor)가 주강사로 진행하며 1급 응급구조사 등 현장 구급대원이 자체교육 등 실습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도·익산시, 일자리 확대 협력 강화

전북도와 익산시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익산시는 정현을 시장이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일자리

발굴사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정부의 지역형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에 발맞춰 지역기업을 활용한 전북형(익산) 일자리사업과 대규모 식품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익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철도 거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구축사업의 협조도 구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역의 발전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뉴시스

코레일 전북본부, 다문화가정 해피트레인 시행

코레일 전북본부가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들을 초청해 '국회의사당으로 떠나는 해피트레인' 행사를 26일 진행했다.

해피트레인은 코레일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게 기차여행을 통해 나눔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해피트레인에는 진안군에서 추천한 다문화가족(6가족) 43명을 초청, KTX를 타고 국회의사당과 KBS홀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했다.

다문화가족들은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준 코레일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시스

군산고용종합지원센터, 자동차부품설계 교육생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자동차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자동차부품 설계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와 연계해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자동차부품 설계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용으로는 ▲설계도면 작성 및 해석 ▲기계제도의 기본이론 ▲AutoCAD 개요 및 도면 드로잉법 ▲객체작성법 ▲부품설계도면 분석 및 실습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450-1307) 또는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전화(☎469-486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